



[BTS매력론] BTS의 글로벌 매력 이야기

BTS, 서사와 소통, 메시지로 세계를 매혹하다

김수정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객원교수

들어가며: BTS, 세계를 매혹하다

이리 와 난 너의 파라다이스

Can't close your eyes

발버둥 쳐봐도 더는 소용 없는 걸 (날 거부하지마)

그냥 눈을 감고 귀 기울여봐 피릴 소릴 따라와 ooh

이 노래를 따라와 ooh

조금 위험해도 나 ooh 참 ooh 달잖아

널 구하러 온 거야 ooh 널 망치러 온 거야 ooh

니가 날 부른 거야 ooh 봐 ooh 달잖아 (...)

어쩌면 그래 나는 조금 위험해

널 이끄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나는 너를 시험해 알면서도 이끌리는 선악과처럼

내 피리는 모든 걸 깨워 그 소린 널 애태워 더 이끌려

반응하는 너 끊임없이 숨을 불어내 huh 난 너의 guilty pleasure

헤어 나올 순 없어 Never

- BTS 2017 앨범 <LOVE YOURSELF 承 'Her'> 'Pied piper' 중에서

2013년 6월 13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힙합 아이돌 그룹이 데뷔하였다. 방탄소년단(이하 BTS)이라 불리는 이 7인조(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보이 그룹은 2020년 9월 기준 화관문화훈장을 비롯한 80개 이상의 부문에서 수상 실적을 거두고, 한국 가수 중 최초 빌보드 핫 200 차트 1위,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 그래미 입성, 사우디아라비아 공연, 미(美) 타임지(TIME) 커버 장식 외 다수의 이력을 갱신하며 ‘최초’와 ‘최고’의 타이틀을 독점, ‘기록 소년단’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 데뷔 5년 만인 2018년 세계 최정상에 오른 후 매 순간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BTS는 K팝과 한국어, 한국의 역사 등을 전 세계에 알리며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무려 56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¹⁾ 실질적인 국익에 이바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간 BTS의 성공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은 이들의 성공을 크게 음악, 퍼포먼스, 팬덤, 소셜미디어(SNS) 활용, 스토리텔링 전략의 측면에서 조망해왔다. 특히 이 중 스토리텔링 측면에 주목한 연구들은 기존의 아이돌과 달리 BTS의 경우 10대와 20대가 겪는 어려움, 고민, 사회문제 등을 가사로 풀어내고 있음에 주목하며, 이들이 “2010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한다고 평가받는 아이돌”임을 분명히 한다²⁾. 그리고 이러한 주제의식에 대해 미국 언론과 음악 매체, 팬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BTS가 그들의 핵심 향유층이 속한 세대의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멤버가 직접 곡 제작에 참여하고 스스로 음악을 창작하는 등 음악적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 BTS는 또한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사에 녹여내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글 역시 이러한 스토리텔링 측면에 주목하여 BTS의 매력을 논하고자 한다. 최근 그들의 신곡 ‘Dynamite’를 통해 한국인 최초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기록한 BTS 음악이 담고 있는 서사와 메시지가 갖는 매력을 가사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이 글은 BTS 음악 가사의 특징이자 매력을 1) 성장과 성공의 자전적 서사 구축, 2) 공감, 위로, 용원을 통한 부드러운 연대의식의 공유, 3) 향상심을 자극하는 메시지 전달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이 2013년 데뷔 앨범인 《2 COOL 4 SKOOL》에서부터 가장 최근 발매된 정규앨범인 《MAP OF THE SOUL: 7》에 수록된 곡들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아가 이 글은 “대중문화가 각 세대의 담론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통로”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문화 콘텐츠의 경우 그 시대의 코드가 다양하게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³⁾는 점에 주목해, BTS의 음악이 비단 한국의 팬들뿐 아니라 세계의 팬들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BTS와 그들의 주요 팬층인 청년세대가 공유하

고 있는 시대정신 및 세대 정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장과 성공의 자전적 서사 구축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화적 텍스트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더 자극한다. 본래 인간이 실화에 대한 원초적인 궁금증과 관심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중문화가 갖는 ‘대중성’과 실제 있었던 흥미로운 ‘실화’의 결합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며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실화가 가진 ‘사실성’은 독자의 마음을 실존 인물 및 사건에 감정이입하게 만들고, 동시에 현실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셀레와 빌란드직⁴⁾은 실화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의 ‘외적 현실감’과 ‘내적 현실감’을 구분하여 수용자가 현실감을 인식하는 차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외적 현실감(external realism)’은 영화에 실제 사건과 인물이 다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⁵⁾이고, ‘내적 현실감(internal realism)’은 수용자가 영화에 등장하는 사건과 등장인물들이 자신이 속한 세계와 유사하고 그럴듯하다고 믿는 것으로 심리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⁶⁾. 이를 바탕으로 수용자들은 내러티브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얼마나 일관적인지에 초점을 두며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에 몰입하게 된다⁷⁾.

이상의 연구들은 영화를 사례로 들고 있지만, 실화 영화가 갖는 ‘현실감’은 BTS의 음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일찍이 빌보드 케이팝 전문기자인 제프 벤자민(Jeff Benjamin)은 BTS의 음악을 두고, “그들의 메시지는 언제나 매우 개인적인 것들”임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BTS 전체 앨범(15개 앨범)에 수록된 87개 곡(중복 곡 제외)의 가사를 분석해 보면, 51개 곡(약 59%)이 BTS와 멤버들의 자전적 이야기⁸⁾를 담고 있는 곡으로, 곡 제목에 “방탄소년단”이 등장하는 곡이 많으며, ‘나’와 관련된 단어가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한다(총 16개 종류⁹⁾ 1,810개 단어). 아울러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BTS가 발표한 앨범과 음악들은 가수를 꿈꾸던 일곱 청년들의 성장과 성공, 중소기획사의 아이돌로 시작해 세계 탑 가수로 우뚝 서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고 생각했던 가수로서, 인간으로서의 걱정과 고민, 고뇌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이들의 음악이 매우 일관적인 내러티브로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데뷔 앨범의 수록곡이었던 ‘We Are Bulletproof PT.2’와 가장 최근 앨범의 수록곡인 ‘We Are Bulletproof: the Eternal’이 그 대표적 예다. 이 두 노래를 비교해 보면, 데뷔 초 신인가수로서의 패기를 보여주며 세상을 향해 우린 겁이 없으니 돌을 던지라고 외치던 BTS가 그로부터 7년 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난 뒤 발표한 앨범에서, 첫 앨범에서와 마찬가지로 내게 돌을 던지라고 말하여 ‘더 이상’ 우린 겁이 없음을 피력하고,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하며 더 강해진 자신들의 현재를 노래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나 보여줄게 칼을 갈아왔던 만큼

날 무시하던 많은 사람들 이젠

Oh oh oh oh oh oh hey shout it out

Oh 나만치 해봤다면 돌을 던져

We go hard 우린 겁이 없어

- BTS 2013 앨범 《2 COOL 4 SKOOL》 ‘We are Bulletproof PT.2’ 중에서

우린 호기롭게 shout ‘다 던져봐’

세상과 첫 싸움 (...)

so much pain Too much cryin’ (...)

Oh We were only seven But we have you all now

일곱의 겨울과 봄 뒤에 이렇게 맞잡은 손 끝에

Oh Yeah we got to heaven

내게 돌을 던져 우린 겁이 없어

anymore We are we are together bulletproof

- BTS 2020 앨범 《MAP OF THE SOUL : 7》 ‘We are Bulletproof: the Eternal’ 중에서

BTS가 전무후무한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힙합과 아이돌 음악이라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음악 장르의 결합은 BTS의 성공을 이끈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BTS는 데뷔를



전후로 하여, 그리고 데뷔 이후로도 한 동안 엄청난 비판과 비난, 조롱에 직면했다. 칼군무를 추는 힙합 그룹이라니. 기존의 힙합 씬(scene)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BTS의 행보는 소위 기획사에 의해 잘 ‘가공된’ 상품으로 여겨지던 아이돌이 음악적 자생력과 사회비판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힙합에 ‘겁도 없이’ 도전장을 내민 첫 시도로 비쳤던 만큼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때의 경험이 BTS 멤버들과 이들을 바라보는 팬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다가왔음은 물론이다. 이들에게 쏟아진 비난의 화살은 이들이 SM, YG, JYP 같은 대형 기획사가 아니라 중소 기획사 출신이자,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광주, 대구 등 지방 출신이라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

힙합 가수로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한 분노와 그들에게 쏟아졌던 왜곡된 시선들,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을 통해 힙합 가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은 이들의 앨범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특히 2013년과 2014년도에 발매되었던 초기 앨범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중 잣대와 수많은 반대 속에서 깨부숴버린 나의 한계 (...)

나 보여줄게 칼을 갈아왔던 만큼 날 무시하던 많은 사람들 (...)

이리와 미리 봐 한낱 아이돌의 반전 하하

힙부심뿐인 형들은 불가능하다 했지

but 똑똑히 봐 이걸 impossible에 마침표 찍어.

- BTS 2013 앨범 《2 COOL 4 SKOOL》 ‘We are Bulletproof PT.2’ 중에서

또래 랩퍼 지망생들의 질투 (...)

열등감에 찬 저 모두까기 인형들 또

내 선글라스 내 헤어스타일

내 이름 모두를 까 내리지 (...)

oh my haters 좀 더 욕해줘 키보드 위리어

노력해 좀 그래 그렇게 무시해줘 니가 틀렸단 걸

증명하는 게 취미예요.

- BTS 2014 앨범 《O!RUL8,2?》 ‘We On’ 중에서



아울러 이 시기 BTS의 음악에는 비록 신인상을 수상하긴 했으나, 경쟁이 치열한 남자 아이돌 시장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던 상황에서 자신들이 가수가 되기 위해 했던 노력들(“학교 대신 연습실에서 밤새 춤을 추고 노래 불렀네”), 신인가수로서의 패기와 성공에 대한 열망(“이건 장난 같은 게 아냐 보여줄게” “우릴 모른다면 제대로 알아둬 우리가 누구 진격의 방탄”)이 드러나 있기도 하다. BTS는 2015년 《화양연화 pt.1》의 타이틀 곡 ‘I NEED U’로 가온 디지털 차트 5위권 내에 진입하게 되고 첫 음악방송 1위를 수상하며 한국 가요계에서 두각을 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나아가 화양연화 시리즈가 끝나는 2016년 중반까지 발표된 곡들에는 성공가도에 진입한 가수로서의 기쁨과 보람, 더 큰 성공과 성장에 대한 포부와 열망, 자신들이 하는 음악에 대한 애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 화양연화 시리즈의 첫 앨범이었던 《화양연화 pt.1》에 수록되었던 ‘이사’라는 곡은 이 시기 이러한 특징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년 전 여기 침 왔던 때 기억해 (...)

벽지도 화장실도 베란다도 다 파란 집 그 때

난 여기가 막 되게 넓은 집인 줄 알았지 But

내 야망이 너무 커졌어

그리 넓어 보이던 새 집도 이제는 너무 좁아 졌어

17평 아홉 연습생 코 찢찢이 시절 었그제 같은데

그래 우리도 꽤 많이 컸어 좋은 건

언제나 다 남들의 몫이었고 불투명한 미래 걱정

항상 묵쉬었고 연말 시상식 선배 가수들 보며 목 메었고

했던 꾸질한 기억 잊진 말고 딱 넣어두자고

우리의 냄새가 나 여기선 이 향기 잊지 말자

우리가 어디 있진 울기도 웃기도 많이 했지만

모두 꽤나 아름다웠어 논현동 3층 고마웠어

이사 가자 정들었던 이곳과는 안녕 (...)

처음보단 짐도 늘고 처음보단 내 스스로 가진 것도

늘었어 이젠 자부심을 딱 들고 더 큰 꿈을



나 바라보겠어 새 출발 새 시작 어떤 식으로
또 꾸밀지 기대되는 시간 (...)
다시 이사 가려고 해 아이돌에서
한 단계 위로 꿈이 잡히려 해 (...)
이사 가자 이제는 더 높은 곳으로.
- BTS 2015 앨범 《화양연화 pt.1》 ‘이사’ 중에서

2016년이 되면서, BTS는 본격적으로 ‘성공한 가수’로서의 입지를 분명히 하기 시작한다. 이때 발표했던 《WINGS》 앨범이 흥행하면서 한국 최다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고, 타이틀 곡이었던 ‘피, 땀, 눈물’로 첫 대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BTS 음악에는 또 한 차례 서사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멤버들 개개인의 이야기가 곡에 등장하며 그동안 성공한 스타들의 행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인간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BTS는 이 앨범에서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고 정상에 서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표출하는데, 슈가의 ‘First Love’는 자신을 음악의 길로 이끌어준 어린 시절 피아노에 대한 추억을, 제이홉의 ‘MAMA’는 가수의 꿈을 지원해 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그리고 진의 ‘AWAKE’는 자신에 대한 의심과 그로부터 파생된 현재의 불안한 심경을 노래하고 있다.

내 기억의 구석 한 켠에 자리 잡은 갈색 piano (...)
그때 기억해 내 키보다 훨씬 더 컸던 갈색 piano
그게 날 이끌 때 널 우러러보며 동경했었네
작은 손가락으로 널 어루만질 때
I feel so nice mom I feel so nice
그저 손 가던 대로 거닐던 건반 그땐
너의 의미를 몰랐었네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때.
- BTS 2016 앨범 《WINGS》 ‘First Love’ 중에서

2006년의 해 춤에 미쳐 엄마 허리띠를 졸라맸지
아빠 반대에도 매일 달려들 때 아랑곳하지 않고



떠워주신 꿈의 조각 배 But 몰랐지
 엄마의 큰 보탬이 펼쳐 있는 지름길 아닌 빛을 쫓
 이 꿈의 길 Always 문제의 money
 어머니 결국 Go way 타지로 일하러 가셨어.
 - BTS 2016 앨범 《WINGS》 ‘MAMA’ 중에서

믿는 게 아냐 버텨보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나 이것뿐이라서 머물고 싶어 더 꿈꾸고 싶어 (...)
 Maybe I can never fly
 저기 저 꽃잎들처럼 날갯 단 것처럼은 안 돼 (...)
 이 어둠 속을 그냥 걷고 또 걷고 있어
 행복했던 시간들이 내게 물었어
 넌 정말 괜찮은 거냐고 난 대답했어
 아니 나는 너무 무서워
 그래도 여섯 송이 꽃을 손에 꼭 쥐고 난 걷고 있을 뿐이라고.
 - BTS 2016 앨범 《WINGS》 ‘AWAKE’ 중에서

BTS는 트위터와 브이앱 등 SNS를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해 오며 가수이자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 느끼는 고민과 감정들을 나눠왔다. 때문에 팬들은 ‘마마’를 부른 제이홉이 과거 오랫동안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왔으며, 그런 제이홉을 어머니가 뒷바라지하며 응원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가장 어린 멤버인 정국이 너무나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난 후 겪었던 성장통, 그 과정에서 다른 형들과 나눴던 애정에 대해서도, 매일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RM의 번민과 고뇌에 대해서도, 또 상대적으로 가수로서의 끼가 부족해 늘 자신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진의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들에 대한 이 같은 사전 지식은 이들이 발표한 자전적 노래들과 시너지를 일으키며 팬들로 하여금 공감과 일치감을 느끼게 한다.

한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LOVE YOURSELF’ 시리즈는 BTS를 단순히 국내에서 성공한 가수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가수로 인정받게 하는 교두보가 되었다. 2017년 《LOVE YOURSELF 承 ‘HER’》의 타



이들 곡 'DNA'로 첫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진입, 빌보드뮤직어워드(BBMA)에서 탑 소셜 아티스트(Top Social Artist) 상을 수상하며 월드 스타로서의 행보를 시작하였고, 2018년에는 ≪LOVE YOURSELF 轉 'TEAR'≫와 ≪LOVE YOURSELF 結 'ANSWER'≫ 앨범들 모두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이그룹으로 평가받기에 이른다. BTS가 2017년도부터 3년 연속으로 수상한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은 SNS상에서의 인기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BTS가 전 세계에 공고한 팬덤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규모의 팬덤을 구축한 만큼 BTS의 월드투어 역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 앨범들에는 전 세계를 누비며 자신들의 화려한 수상실적과 월드투어 실적을 자랑하는 행보가 연이어 드러나며('MIC Drop'과 'Airplane pt.2'), 동시에 늘 자신들을 비판하던 타인들(일명 hater)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애에 이르는 모습이 분명하게 표현된다('IDOL'과 'Answer: Love Myself').

Did you see my bag

트로피들로 백이 가득해

How you think bout that Hater들은

별써 학을 떼 이미 황금빛 황금빛 나의 성공 (...)

내 손에 트로피 아 너무 많아 너무 heavy

내 두 손이 모잘라 (...)

아 너무 바빠 너무 busy 내 온몸이 모잘라 (...)

이번엔 어느 나라 가 비행기 몇 시간을 타.

- BTS 2017 앨범 ≪LOVE YOURSELF 承 'Her'≫ 'MIC Drop' 중에서

We still Sky high sky fly sky dope (...)

We goin' from NY to Cali London to Paris

우리가 가는 그 곳이 어디든 Party (...)

We goin' from Tokyo Italy Hong Kong to Brazil



이 세계 어디서라도 난 노래하리.

- BTS 2018 앨범 《LOVE YOURSELF 轉 'Tear'》 'Airplane pt. 2' 중에서

You can call me artist

You can call me idol

아님 어떤 다른 뭐라 해도

I don't care I'm proud of it 난 자유롭네

No more irony 나는 항상 나였기에

손가락질 해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네

나를 욕하는 너의 그 이유가 뭐든 간에

I know what I am I know what I want.

- BTS 2018 앨범 《LOVE YOURSELF 結 'Answer'》 'IDOL' 중에서

You've shown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I'm learning how to love myself)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 BTS 2018 앨범 《LOVE YOURSELF 結 'Answer'》 'Answer: Love Myself' 중에서

2019년 발매된 《MAP OF THE SOUL: PERSONA》는 발매 첫 주 213만 장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으며(한국 역대 음반 초동 1위), 빌보드 200 차트 1위, 타이틀 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빌보드 핫 100차트 8위에 진입하며 새로운 기록을 경신한다. 또한 2020년 발매된 《MAP OF THE SOUL: 7》 역시 한국 가수 최초 가온차트 총판 400만 장을 돌파했으며, 빌보드 핫 100 차트 4위(발매 시점 기준 한국 가수 최고 진입), 세계 5대 음악 시장 공식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하며 BTS는 이제 명실상부한 월드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2019년 앨범부터는 진정한 자기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아 탐구로의 여정



이 시작되고 스스로를 케이팝 아이돌에서 예술가로 규정하는 정체성의 전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MAP OF THE SOUL: PERSONA》의 첫 곡인 ‘PERSONA’에서 던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강렬한 질문에 대해 같은 앨범 마지막 곡인 ‘Dionysus’에서 “케이팝 아이돌로 태어나 다시 환생한 아티스트”라고 대답하는 것이 이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가장 최근 정규 앨범인 《MAP OF THE SOUL: 7》에서는 곡마다 자신들이 걸어온 길에 대한 성찰과 마주한 정체성 등을 담았다. ‘Interlude: Shadow’에서 성공한 가수로서 마주하는 내면의 그림자와 명성이 주는 무게를, ‘Black Swan’에서 예술가로서의 고뇌를, ‘ON’에서 그림에도 다시 해보는 도약을, 그리고 ‘We are Bulletproof: the Eternal’에서 성장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느끼는 보람과 감사함을 노래한다.

도망쳐봤자 날 따라오는 빛과 비례하는 내 그림자
 두려워 높게 나는 게 난 무섭지 아무도 말 안 해줬잖아
 여기가 얼마나 외로운지 말야 나의 도약은 추락이
 될 수 있단 걸 (...)
 사람들은 말하지 저 빛 속은 찬란하네
 근데 내 그림자는 되려 더 커져 나를 삼켜 괴물이 돼 (...)
 나의 바람대로 높게 날고 있는 순간
 내리쬰는 빛에 더 커진 그림자
 please don't let me shine don't let me down
 don't let me fly
 이제는 두려워

– BTS 2020 앨범 《MAP OF THE SOUL : 7》 ‘Interlude: Shadow’
 중에서

심장이 뛰지 않는대 더는 음악을 들을 때
 Tryna pull up 시간이 멈춘 듯 해
 Oh that would be my first death I been always afraid of
 이게 나를 더 못 울린다면 내 가슴을 더 떨리게 못 한다면



어쩔 이렇게 한 번 죽겠지 아마

But what if that moment's right now right now.

- BTS 2020 앨범 <MAP OF THE SOUL : 7> 'Black Swan' 중에서

두렵잖을 리 없잖아 괜찮을 리 없잖아

그래도 I know 서툴게 I flow

저 까만 바람과 함께 날아 (...)

나를 다 던져 이 두 쪽 세상에 (...)

제 발로 들어온 아름다운 감옥

find me and I'm gonna live with ya

가져와 bring the pain (...)

모두 내 피와 살이 되겠지 (...)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언제나 우린 그랬으니

설령 내 무릎이 땅에 닿을지언정 파묻히지 않는 이상

그저 그런 해프닝쯤 될 거란 걸.

- BTS 2020 앨범 <MAP OF THE SOUL : 7> 'ON' 중에서

부정적인 시선에 맞서 우린 해냈고

나쁜 기억도 많은 시련도 다 호기롭게 우린 막아냈지 (...)

늘 생각해 아직 꿈속인 건 아닐까 길었던 겨울 끝에

온 게 진짜 봄일까 모두 비웃던 한뼘 부끄럽던 이름

이건 쇠로 된 증명 "Bulletproof" (...)

일곱의 겨울과 봄 뒤에 이렇게 맞잡은 손끝에 Yeah we got to heaven.

- BTS 2020 앨범 <MAP OF THE SOUL : 7> 'We are Bulletproof: the Eternal' 중에서

이처럼 BTS가 발표한 곡들은 마치 "BTS를 주연으로 하는 실화 영화에 삽입된 배경음악(OST)" 같은 인상을 준다. BTS라는 실존 인물이 그들의 성장 및 성공담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인 곡들과 직접 제작에 참여한 곡들을 대거 발표함으로써 이를 소비하는 수용자들에게 엄청난 강도의 외적 현실감을 제공한다

고 볼 수 있다. 아울러 7여 년에 걸쳐 일관된 흐름을 유지해 온 음악적 내러티브, 월드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면한 상황들, 겪어내고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 이를 통해 드러나는 고민, 좌절, 불안 등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들은 이들의 상황과 그들의 음악을 듣는 우리의 상황이 유사하다는 감정을 심어주며 팬들에게 강한 정도의 내적 현실감을 제공한다. 그들의 노래가 단순히 청춘들의 삶을 말하는 것을 넘어 바로 그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 그럼으로써 청자들에게 이들, 그리고 이들의 음악이 상당한 정도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 BTS의 음악이 갖는 첫 번째 매력이자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공감, 위로, 응원을 통한 부드러운 연대의식의 공유

BTS는 종종 90년대를 풍미했던 ‘서태지와 아이들’과 비교되곤 한다. 두 팀 모두 당대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청년세대의 입장에서 사회비판적인 곡들을 다수 발표했다는 점도 이들이 갖는 공통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차이점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청소년을 훈육하고 각성시키는 입장에 섰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BTS의 경우 가사를 통해 청년세대에 대한 공감과 위로, 나아가 응원을 앞세운 동료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이다¹⁰. ‘뱍새’를 통해 3/5/7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세대와 세대 의식을 공유하고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더 ‘노오력’할 것을 강요하는 사회에 일침을 날리며, ‘고민보다 고(Go)’를 통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도 늘 경제적 약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올로(Yolo)’와 ‘탕진잼’을 외치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자 하는 청년들에 공감한다. 또한 이들은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바보같이 실수해도 괜찮다며 용기를 북돋아 주고(‘So What’), 나아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독려하기도 한다(‘Answer: Love myself’).

They call me 뱍새 욕봤지 이 세대 (...)
금수저로 태어난 내 선생님 알바가면 열정페이
학교가면 선생님 상사들은 행패
언론에선 맨날 몇 포 세대 (...)



이건 정상이 아냐 아 노력 노력 타령 좀 그만 뒤.

- BTS 2015 앨범 《화양연화 pt.2》 ‘뱀새’ 중에서

내 일주일 월화수목 금금금금

내 통장은 yah 밑 빠진 독이야

난 매일같이 물 붓는 중 차라리 강 깨버려

걱정만 하기엔 우린 꽤 젊어

오늘만은 고민보단 Go해 (...)

쥐구멍 별들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YOLO YOLO YOLO YO

탕진잼 탕진잼 탕진잼.

- BTS 2017 앨범 《LOVE YOURSELF 承 'Her'》 ‘고민보다 Go’ 중에서

We are young & wild & free

답도 없는 고민 그 속에 빠져있지만

경계선 위에서 위태롭다 해도 웃고 떠들며 바람을 가르자

때론 바보같이 멍청이 달리기

실수와 눈물 속에 we just go

So what 멈춰서 고민 하지마 쓸데없이 Let go

아직은 답이 없지만 You can start the fight.

- BTS 2018 앨범 《LOVE YOURSELF 轉 'Tear'》 ‘So What’ 중에서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니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니 삶 속의 굶은 나이테

그 또한 너의 일부 너이기에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버리기엔 우리 인생은 길어.

- BTS 2018 앨범 《LOVE YOURSELF 結 'Answer'》 ‘Answer: Love



Myself' 중에서

앞서 살펴본 BTS의 서사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끊임없이 도약해 가는 청년들의 성장담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편으로 다소 뻔해 보이는 그들의 서사와 그들이 던지는 위로와 공감의 노래가 값싼 동정이나 상투적인 위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비록 이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월드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나아가 듣는 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부드럽고도 끈끈한 연대의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BTS는 지난 2월 24일 오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정규 4집 앨범 《MAP OF THE SOUL: 7》 발매 기념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있기까지 수없이 거처온 길, 현재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풀어냈어요. 그간 숨기고 싶었던 깊은 내면을 드러냈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 진짜 모습임을 알게 된 방탄소년단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우리 노래가 공감과 감동, 위로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¹¹⁾. 그리고 이러한 제스처는 그들의 노래뿐 아니라 그 외의 행보로까지 이어지며 한층 강화된 설득력을 갖는다.

실례로 BTS는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 9월 23일 제75차 유엔총회 부대행사로 열린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고위급 회의에서 특별연사로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 받는 세계인들을 향해 위로의 메시지를 던졌다¹²⁾.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라는 구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BTS는 늘 자신들을 ‘믿고’ 또 ‘함께’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이들의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래에 제시된 곡들(‘둘! 셋!’, ‘Not Today’, ‘A Supplementary Story: You never walk alone’)이 대표적으로, 여기서 BTS는 그들의 청자들에게 서로를, 또 스스로를 믿을 것을 당부하며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독려의 말을 전하고, 위로와 공감, 응원, 그리고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부드러운 연대의식을 강화해 나간다.

괜찮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잊어
슬픈 기억 모두 지워 내 손을 잡고 웃어 (...)
그래도 좋은 날이 앞으로 많기를
내 말을 믿는다면 하나 둘 셋 믿는다면 하나 둘 셋 (...)
하나 둘 셋 하면 모든 것이 바뀌길



더 좋은 날을 위해 우리가 함께이기에.

- BTS 2016 앨범 《WINGS》 ‘둘! 셋!’ 중에서

날아갈 수 없음 뛰어 Today we will survive

뛰어갈 수 없음 걸어 Today we will survive

걸어갈 수 없음 기어 기어서라도 gear up

겨뉜 총! 조준! 발사!

Not not today Not not today!

Hey 땀새들아 다 hands up

Hey 친구들아 다 hands up

Hey 나를 믿는다면 hands up (...)

우린 할 수가 없었단다 실패

서로가 서로를 전부 믿었기에

What you say yeah Not today yeah

오늘은 안 죽어 절대 yeah

너의 곁에 나를 믿어 Together we won't die

나의 곁에 너를 믿어 Together we won't die

함께 라는 말을 믿어 방탄이란 걸 믿어 (...)

승리의 그날까지 fight 무릎 꿇지 마 무너지지마. (...)

Throw it up! Throw it up!

니 눈 속의 두려움 따위는 버려

Break it up! Break it up!

넌 가두는 유리천장 따윈 부숴.

- BTS 2017 앨범 《YOU NEVER WALK ALONE》 ‘Not Today’ 중
에서

상처투성일 지라도 웃을 수 있어 함께라면

홀로 가는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든 발 디터볼래

때론 지치고 아파도 괜찮아 니 곁이니까

너와 나 함께라면 웃을 수 있으니까 (...)



I never walk alone

잡은 너의 손 너의 온기가 느껴져

You never walk alone

나를 느껴봐 너도 혼자가 아니야 (...)

이 길이 또 멀고 험할지라도 함께 해주겠니

넘어지고 때론 다칠지라도 함께 해주겠니.

- BTS 2017 앨범 《YOU NEVER WALK ALONE》 ‘A Supplementary Story: You Never Walk Alone’ 중에서

BTS가 이 시대의 청년들과 맺고 있는 이 같은 연대의식은 이들이 서로 공통의 정서를 공유하며 더욱 긴밀해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BTS와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어떤 감정을 공유하고 있을까? 2019년 8월 26일부터 3일간 열린 ‘BTS 마케팅 인사이트 포럼’에서 ‘봄바람(BOMBARAM) 스토리텔링 미디어’는 “BTS 데이터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감정어 분석을 통해 BTS의 13개 앨범의 핵심 감정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들의 모든 앨범에 ‘슬픔’의 정서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슬픔의 정서는 오늘날 88만 원 세대, N포 세대 등으로 불리며 집단적 차원의 번아웃(Burn out) 증후군을 겪고¹³⁾, 빛 없는 삶을 꿈꾸는¹⁴⁾ 밀레니얼 세대의 주된 정서라 할 수 있다.

현재 청년세대가 느끼는 슬픔과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2000년대와 2010년대 출판계를 강타했던 자기 계발서의 화두인 ‘위로’와 ‘공감’과도 맞닿아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모두가 자기 계발서를 읽으며 자기 개조에 열중하던 시기를 지나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 쥐는 것이 없다는 판단에 이른 2000년대에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이 넘쳐났고 ‘미움 받을 용기’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 청년세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그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대안 없는 말뿐인 위로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각 속에 모두 힐링(healing)으로 몰려갔다. 팬들과 언론들은 이런 속에 등장한 BTS의 위로가 다른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한다. 성장통을 겪고 있는 청춘이, 세상에서 길을 잃은 약자가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전하는 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공감과 연대 위에 가능한 위로이기 때문이다¹⁵⁾.

이처럼 7여 년 간의 자전적 서사를 바탕으로 한 곡들과 그를 토대로 형



성한 진정성, 그리고 신뢰에 더해 BTS는 그들의 핵심 향유층인 청년세대와 ‘슬픔’을 매개로 한 정서적 유대를 맺고, 여기에 기반한 위로와 공감을 제공하며 응원의 말을 건넌으로써 그들의 음악을 듣는 청년들의 삶에 더욱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정성을 담보한 존재, 특히 나와 동류라고 느껴지는 존재와의 속 깊은 심적·문화적 유대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BTS의 노래가 갖는 두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한 편으로 다양화되고, 그렇기에 다른 한편으로 분절화되어 고립감을 느끼는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나아가 이러한 토대에서 전달되는 그들의 ‘메시지’는 해당 메시지를 전달받는 사람들에게 한층 더 깊은 울림을 준다는 점에서 다음에서 살펴볼 세 번째 특징, 그리고 매력과도 맞닿아 있다.

향상심을 자극하는 메시지 전달

To all the youth without dreams
Speak Yourself, Find Yourself, Love Yourself

꿈이 없는 모든 청년들이여
당신에 대해 말하고, 자기 자신을 찾고, 또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BTS만큼 향상심을 자극하는 그룹이 또 있을까? 개인적 이야기를 담아 자전적 서사를 구축해 온 BTS의 음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사랑, 즉 자기애와 꿈, 자아실현 등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나만의 꿈을 발견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이러한 메시지와 그 영향력을 인정받아 2018년 9월 24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Generation unlimited)’ 파트너십 출범 행사에 대표로 참여하여 “자신을 사랑하자”는 주제로 연설을 진행하였고, 모든 청년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길 요청”했다.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이 주요한 메시지였다.

이러한 행보는 BTS가 지금까지 발표해온 곡들에 수없이 많이 드러나 있다. 단적인 예로, BTS가 이제까지 발표한 전체 87개 곡 중 절반이 넘는 49개 곡에 ‘꿈’(‘dream’ 포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들 수 있는데, 데뷔 앨범에



서 “꿈이 없는 모든 청년들에게(To all the youth without dreams)”(‘No More Dream’)를 외치며 가요계에 등장한 BTS는 어릴 적 자신들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좌절의 순간을 겪어 왔는지, 이를 극복하고 느낀 기쁨과 행복감은 얼마나 큰지를 노래해 왔으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스스로를 긍정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그려내 왔다.

늘 생각해 지금 새우잠 자더라도 꿈은 고래답게 (...)

외판 섬 같은 나도 빛날 수 있을까 (...)

오늘도 다시 노래하지 나.

- BTS 2015 앨범 《화양연화 pt.2》 ‘Whalien 52’ 중에서

Forever we are young

나리는 꽃잎 비 사이로 헤매어 달리네 이 미로 (...)

넘어져 다치고 아파도 끝없이 달리네 꿈을 향해 (...)

꿈, 희망, 전진 전진.

- BTS 2016 앨범 《화양연화 Young Forever》 ‘EPILOGUE : Young Forever’ 중에서

수없이 헤매도 난 나의 길을 믿어볼래

Lost my way Found way (...)

쓸모 있어 이 좌절도 난 믿어 우린 바로 가고 있어 (...)

좀 느려도 내 발로 걸겠어 이 길이 분명 나의 길이니까

돌아가도 언젠가 닿을 테니까

I never I will never I will never lose my dream.

- BTS 2016 앨범 《YOU NEVER WALK ALONE》 ‘Lost’ 중에서

가진 게 꿈밖에 없었네 눈 뜨면 뿌연 아침뿐

밤새 춤을 추며 노래해 그 끝이 없던 악보들.

- BTS 2020 앨범 《MAP OF THE SOUL : 7》 ‘We are Bulletproof: Eternal’ 중에서

그리고 단순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음악을 듣는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기를(“자신에게 물어봐 니 꿈의 프로파일”, “니가 꿈꿔온 니 모습이 뭐여 지금 거울 속엔 누가 보여”), 어릴 적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 잃어버린, 혹은 잊고 있던 꿈을 다시 소환하고(“9살 아니면 10살 때쯤 내 심장은 멈췄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 내 꿈은 뭐였지”) 한 번 더 도전하기를(“다시 꿈을 꺾봐”), 포기하지 말기를(“뒤로 달아나지마 네 버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우니까 ... 니가 어디 서 있든 잠시 쉬어가는 것일 뿐 포기하지마”), 자신의 삶에 주체가 되기를(“억압만 받던 인생 니 삶의 주어가 되어봐”, “I gotta say 너의 길을 가라고”, “왜 나의 인생에서 나는 없고 그저 남의 인생들을 살게 됐어”, “한 번뿐인 인생 넌 대체 누굴 위해 사냐”) 권한다.

3/5/7포세대라는 용어에서 청년세대가 가장 마지막으로 포기하는 것이 바로 꿈과 희망이다. 바꿔 말하면, 꿈과 희망은 이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꿈은 완전한 자유도를 갖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이자 희망으로 가득 찬 밝은 미래와 연관된 무엇으로 여겨져 왔다. 사회는 청년들에게 큰 뜻을 품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상상하라고 가르쳐 왔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꿈은 클수록 좋은 것이면서 동시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¹⁶⁾. 그러나 역대 최악의 경제성장률과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취업시장 상황,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고용상태 등은 “나만의 꿈을 꾸고, 자신만의 길을 가라”는, 오늘날을 사는 청년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구호를 허황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어릴 적 꾸었던 각기 다양했던 꿈들 대신 이제 많은 수의 청년들은 전문직, 공무원, 연예인, 유튜버 등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한정된 직업을 희망하거나, 아예 꿈꾸기를 멈추고 단지 ‘생존’을 위한 삶을 이어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와 끈끈한 동류의식 혹은 연대를 맺고 있는 존재의 이상적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행보, 그리고 그들의 노래를 통해 직접 전해지는 ‘꿈’에 관한 메시지는 꿈을 잊거나 잃어버린 청년세대에게 이제는 포화상태에 이른 그저 그런 위로의 말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시대적 맥락, 그로 인해 더 이상 안정적인, 그리고 신뢰할 만한 역할 모델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BTS는 친구이자 위로자, 동시에 믿고 따를 수 있는 역할 모델로 기능하는 것이다. BTS는 지난 9월 10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하여



‘꿈 챌린지’를 제안하면서¹⁷⁾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는 다시금 ‘꿈’이라는 화두가 이들 자신과, 나아가 이들을 신뢰하고 좋아하는 청년 팬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상기시켜준다.

한편, ‘자신에 대한 사랑’(자기애)은 꿈과 함께 BTS의 음악에 일관되게 흐르는 핵심 주제이다. 유엔아동기금과 함께 진행한 러브유어셀프 캠페인으로도 유명한 이들의 음악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I wish I could love myself”, “You can’t stop me lovin’ myself”), 의무로서의 자기애(“I’m the one I should love in this world”, “I should love myself”), 현재의 나에 대한 사랑(“빛나는 나를 중한 내 영혼을 이제야 깨달아 so I love me 좀 부족해도 너무 아름다운 걸”)이 드러나는데, 2018년 발표된 ‘에피파니(Epiphany)’와 ‘앤서: 러브 마이셀프(Answer: Love Myself)’는 이러한 경향을 특히 집약해서 보여준다.

웃고 있는 가면 속의 진짜 내 모습을 다 드러내

I’m the one I should love in this world

빛나는 나를 소중한 내 영혼을 이제야 깨달아

So I love me 좀 부족해도 너무 아름다운 걸

I’m the one I should I love

흔들리고 두려워도 앞으로 걸어가 (...)

왜 난 이렇게 소중한 날 숨겨두고 싶었는지

뭐가 그리 두려워 내 진짜 모습을 숨겼는지

I’m the one I should love in this world (...)

조금은 뭉툭하고 부족할지 몰라

수줍은 광채 따윈 안 보일지 몰라

하지만 이대로의 내가 곧 나인걸

지금껏 살아온 내 팔과 다리 심장 영혼을 사랑하고 싶어.

- BTS 2018 앨범 《LOVE YOURSELF 結 ‘Answer’》 ‘Epiphany’ 중
에서

차가운 밤의 시선 초라한 날 감추려 몹시 뒤척였지만 (...)



You've shown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I'm learning how to love myself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쩔 이것도 답은 아닌거야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또 찾고 있어 But

더는 죽고 싶지가 않은 걸

슬프던 me 아프던 me 더 아름다울 美

그래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아는 마음이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날 위한 행보는 바로 날 위한 행동

날 위한 태도 그게 날 위한 행복

I'll show you what I got

두렵지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love myself.

- BTS 2018 앨범 《LOVE YOURSELF 結 'Answer'》 'Answer: Love Myself' 중에서

이때, BTS의 음악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기애는 자아도취에 근거한 이기적 사랑이 아니다. 이들이 노래하는 자기애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자기 긍정이 선행된 사뭇 '건강한' 자기애다. 또한 단순히 '나를 사랑하자'만을 강조하기보다, 그 일이 사실상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토로하며 자신들 역시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기를 오랫동안 염원해 왔음을, 자기애에 이르기까지 먼 여정을 거쳐 왔음을 언급한다. 그동안 '개인'과 '자아'의 가치와 문제는 세계와 국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가치들 및 문제들 앞에 평가절하되어 왔다. 자기애에 대한 관심, 스스로에 대한 사랑은 철없는 '나르시시즘'이나 이기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터부시 되어 온 경향이 있다. '자존감'이 자기애를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BTS처럼 직접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자'고 외친 그룹은 없었으며 더욱이 이를 몸소 실천하며 주장한 선례가 없었기에 그 메시지의 설득력은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들의 메시지는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길 원하는 청년들의 세대적 요구, 또한 집단적 율음 혹은 편견을 벗어나 개개인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담지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와 맞아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의 작가이자 문화평론가인 정지우는 그의 최근 저서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¹⁸⁾에서 밀레니얼의 가치관이 정확히 어떠한지 특정하는 것부터 논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자면 ‘거대 담론에서 자기 삶으로 이동’이라는 측면만큼은 밀레니얼의 비교적 명확하고 세대적인 가치관임을 주장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이들은 세상 자체를 거대한 대립이나 거대한 신념체계, 혹은 역사적 발전과정이나 민족적 승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무엇보다도 자기 삶에 가장 근원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대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BTS의 음악, 특히 그들의 가사가 갖는 세 번째 특징은 그것이 ‘자기 삶에 가장 근원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과 진정한 사랑에 이르기를 희망하며, 잊었던(혹은 잃어버렸던) 꿈을 소환·회복시켜 이를 위해 정진함으로써 더욱 ‘온전한’ 내가 되기를 열망하는 청년세대에게 ‘향상심’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향상심은 청년세대가 바라는 진정한 자아상에 이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다란 추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역시 수용자인 청년세대들에게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희미해져 가던 청년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가능성이라는 불꽃을 다시 지피는 역할을 BTS가 그들의 노래를 통해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나가며: BTS와 아미가 함께하는 소우주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불빛들 모두 소중한 하나
어두운 밤 (외로워 마) 별처럼 다 (우린 빛나)
사라지지 마 큰 존재니까



Let us shine 어쩔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또 아름다운 건

Oh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꾀 I got you

칠혹 같던 밤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

Shine, dream, Sm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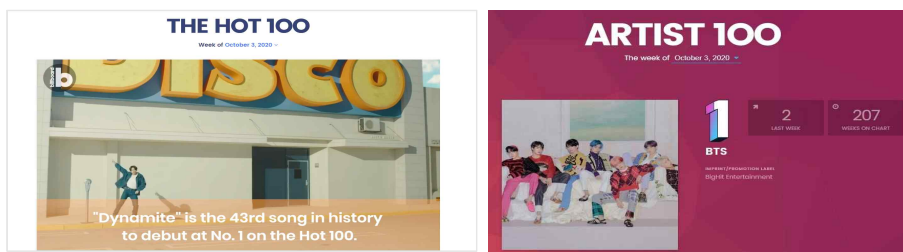
Oh let us light up the night 우린 우리대로 빛나 (...)

우리 그 자체로 빛나 Tonight

- BTS 2019 앨범 《MAP OF THE SOUL : PERSONA》 ‘소우주 (Mikrokosmos)’ 중에서

지난 9월 8일 포브스(Forbes)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2주 연속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제 “이들의 슈퍼스타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고의적 무시(act of willful ignorance)”에 다름 아님을 언급한 바 있다¹⁹⁾. 또한 국내의 언론에서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을 탈환한 BTS가 한류를 주도하고 각종 기록을 경신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²⁰⁾. BTS는 이제 한국의 보이밴드, 케이팝 가수를 넘어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사절이자 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화현상을 보여주는 텍스트, 해석이 필요한 문화적 상징이 됐다. 이들의 행보와 성과는 유튜브 시대, 팬덤의 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끊임없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문화, 여기에 젠더 프리, 마초 남성성의 몰락, 아시안 문화 폭발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한 문화 흐름과 닿아있다. 여기에 미학적 완성도, 스토리텔링, 청춘의 성장통, 선한 영향력 등 인기 요인의 목록은 참으로 길기만 하다²¹⁾.

〈그림 1〉 빌보드 핫 100 차트(좌)와 아티스트 100 차트(우)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한 BTS



(출처: 빌보드 홈페이지 캡처)

이 글은 BTS가 청년세대와 소통하고 그들의 상황과 처지에 공감하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즉 BTS만의 스토리텔링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BTS의 음악, 특히 가사가 갖는 특징이자 매력을 1) 성장과 성공의 자전적 서사 구축을 통한 진정성 담보와 2) 공감, 위로, 응원을 통한 부드러운 연대의식 공유 및 이를 통한 심적·문화적 유대 경험 제시, 3) 향상심을 자극하는 메시지 전달과 이를 통한 온전한 삶에 대한 추동력 제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 결과 BTS의 음악이 진정성을 담은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통해 청중들과 정서적 유대를 맺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아마도 그 특이성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잠시 잠깐 반짝하고 소멸해버리는 인기가 아닌 수년간 지속되어 온, 그리고 그 범위, 크기, 강도를 점차 확장해 온 BTS의 인기 비결은 그들이 오늘날의 청년세대와 시대정신, 그리고 세대 정서를 깊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매력에서 기인하는 것 일 터이다.

202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무한 발전과 성장, 치열한 경쟁과 그 속에서의 승리를 신화처럼 숭배하며 살아왔다. 개인보다는 사회를 사회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풍토 아래, 시대와 국가를 지배하는 이념과 가치 속에서 개인이라는 작은 단위는 그 이념과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존재하는 무명(無名)의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BTS와 그들의 청년세대는 이 같은 구래의 가치들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들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을 위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작동하는 기계의 부품으로서가 아니라 각자의 ‘이름’이 있는, 스스로가 온전한 가치를 갖는 나 자신으로 존재하며, 동시에 나와 너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빛으로 남아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의미 없는 경쟁보다는 너와 내가 함께하는 공존을, 남을 밟고 올라서는 성공보다는 나 자신을 확장시키는 성장을, 그리고 타인의 눈에 비친 완벽함이 아닌 나 스스로 돌아보기에 흡족한 완전함에 이르기를 열망한다. BTS와 아미가 공유하는 시대정신, 그리고 세대의식은 이들이 함께 서로를 비춰주어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소우주일 것이다.

- 1) 김종일. 2020. “[BTS혁명] ‘BTS 경제효과’ 年 5.5조 원.” <시사저널> 2월 21일.
- 2) 길혜빈·안승범. 2019. “Come back home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집의 의미와 성격: 서태지와 아이들, 방탄소년단 작품에 대한 세대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5): 24-34.
- 3) Ibid.
- 4) Busselle, Rick, and Helena Bilandzic. 2008. “Fictionality and Perceived Realism Inexperiencing Stories: A Model of Narrative Comprehension and Engagement.” *Communication Theory* 18(2): 255-280.



- 5) Nichols, Bill. 1991. *Representing Reality: Issues and Concepts in Documenta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Potter, W. James. 1988. "Perceived Reality in Television Effects Research."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2(1): 23-41.
- 6) Potter, W. James. 1988. "Perceived Reality in Television Effects Research."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2(1): 23-41.
- John C., Wright, Aletha C. Huston, Alice Leary Reitz, and Suwatchara Piemyat. 1994. "Young Children's Perceptions of Television Reality: Determinants and Developmental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30(2): 229-239.
- 7) 김수정, 최윤정. 2018. "실화 영화에 대한 현실감 인지는 사회 참여에 영향을 주는가?: 현실감인식, 몰입, 관람 만족도가 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5(2): 43-87.
- Rick W, Busselle. 2001. "Television Exposure, Perceived Realism, and Exemplaraccessibility in the Social Judgment Process." *Media Psychology* 3(1): 43-67.
- Susan E. Moran, Lauren Movius, and Michael J. Cody. 2009. "The Power of Narratives: The Effect of Entertainment Television Organ Donation Storylines on the Attitudes, Knowledge, and Behaviors of Donors and Nondonors." *Journal of Communication* 59(1): 135-151.
- 8) 허구의 인물이 아닌 가수 BTS로서의 삶을 노래한 노래들이 포함된다.
- 9) 나, 나는, 나도, 나로, 나를, 나만, 나에게, 나와, 나의, 나조차, 나한테, 난, 날, 내, 내가, 내게
- 10) 길혜빈·안승범. 2019. "Come back home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집의 의미와 성격: 서태지와 아이들, 방탄소년단 작품에 대한 세대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5): 24-34.
- 11) 뉴시스. 2020. "방탄소년단 "우리 노래, 공감·감동·위로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조선일보> 2월 24일.
- 12) 김승현. 2020. "BTS 두 번째 유엔연설서 세계를 위로 "삶은 계속될 겁니다"." <조선일보> 9월 24일.
- 13) BBC뉴스. 2020. "번아웃 증후군: 밀레니얼 세대, 그들이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이유" 4월 4일.
- 14) 성병찬. 2020. "[한눈 미국경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장 성취하고 싶어 하는 삶의 목적은? 빚 없는 삶." <이코노믹리뷰> 1월 27일.
- 15) 최현미. 2019. "BTS와 '올바른 위로'의 힘." <문화일보> 6월 5일.
- 16) 김수정·차영화·최셋별. 2020. "불평등한 미래: 청소년의 '꿈', 지위표식이 되다." 『한국사회학』 54(1): 101-138.
- 17) 김한길. 2020. "방탄소년단 "뉴스 출연 영광, 그래미 수상은 바람"..'꿈 챌린지'도 제안." <TV데일리> 9월 10일.
- 18) 정지우. 2020.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서울: 한겨레출판.
- 19) Rolli, Bryan. 2020. "BTS's 'Dynamite' Holds Steady At No. 1, Proving That Chart-Topping Hits Are Their New Normal." Forbes September 8.
- 20) 최상경. 2020. "'K팝 새역사' BTS, 전 세계 기록 대행진." <데일리굿뉴스> 10월 5일.



- 21) 최현미. 2019. “BTS와 ‘올바른 위로’의 힘.” 〈문화일보〉 6월 5일.

■ **저자:** 김수정_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민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문화/예술사회학, 한류사회학, 문화예술교육 등을 가르치고 있다. 연구 관심 분야는 문화자본, 계급불평등, 세대문제, 대중문화, 문화정책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Anything but Gugak and Trot"(2020), "불평등한 미래: 청소년의 꿈, 지위표식이 되다"(2020), "한국 문화정책에서의 문화 개념에 관한 연구"(2020), "1960~1980년대 한국 문화정책에 대한 재고찰"(2019), "A Cultural Map of South Korea, 2011"(2017) 등이 있다.

■ **편집:** 전주현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4) jhjun@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0년 12월 23일

[BTS매력론] BTS의 글로벌 매력 이야기

“BTS, 서사와 소통, 메시지로 세계를 매혹하다”

979-11-6617-079-9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